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

-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최빈사망연령이 상승하여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

- “더욱 길어진 노후”는 삶의 생활방식과 근로방식의 재편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사회와 국가 차원의 제도 개혁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인생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1. 조사개요

-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최빈사망연령이 상승하여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
 -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는 우리사회의 각 부문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이는 노년기의 연장에 따른 고령사회 대응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
 - “더욱 길어진 노후”는 삶의 생활방식과 근로방식의 재편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사회와 국가 차원의 제도 개혁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인생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조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주요 사회쟁점 및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표 1〉 조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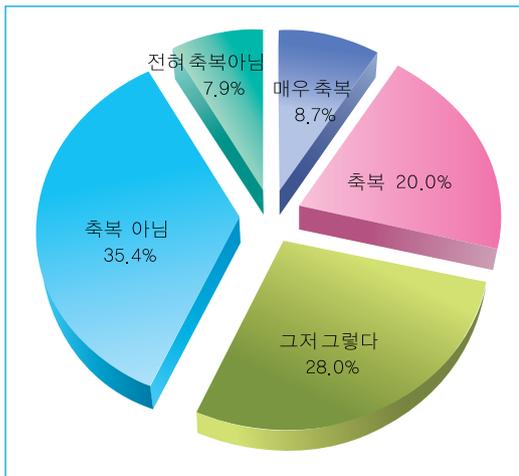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16개 시·도 30-69세 남·녀
조사기간	2011. 6. 1 ~ 8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법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사용한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0%p

2. 인생 100세 시대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가치관

- 평균수명 연장에 대하여 국민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 평균수명 연장에 대한 국민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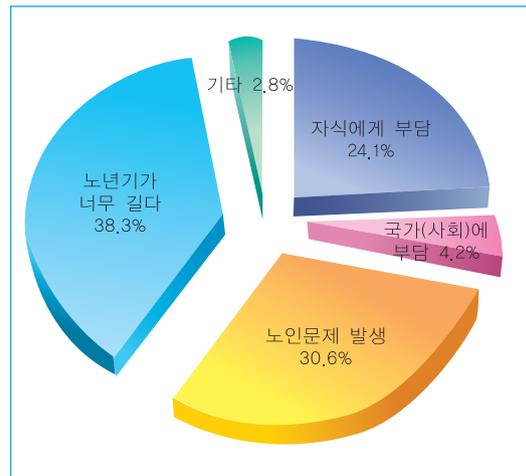
-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사람들이 9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사는 현상을 축복이라는 의견은 28.7%, 그저 그렇다 28.0%, 축복이 아니라는 43.3%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낮음
-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는 노년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노인문제(빈곤, 질병, 소외 · 고독감 등의 발생) 때문이 30.6%, 자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24.1% 등임

[그림 1] 평균수명 연장을 축복이라는 인식



주: 분석대상수는 1,000명임

[그림 2] 평균수명 연장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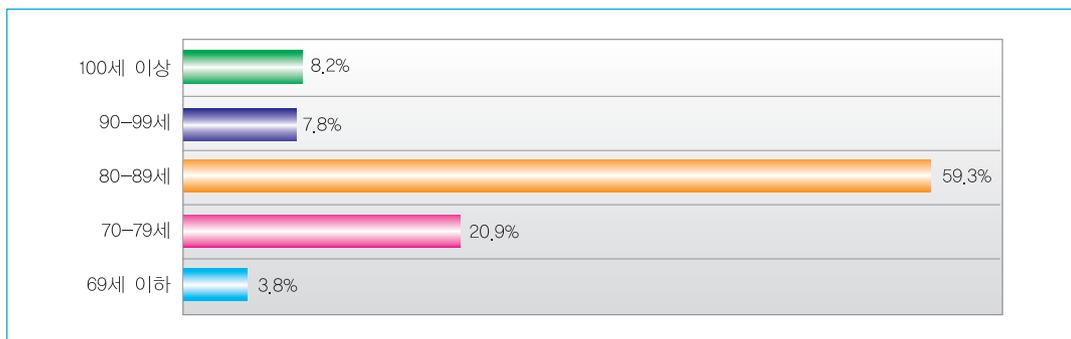


주: 분석대상수는 431명임

□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국민이 희망하는 수명과 은퇴 시기는 몇 세인가?

-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국민의 희망 수명
 - 희망하는 수명은 80~89세가 59.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70~79세가 20.9%로 대다수 국민이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를 인식하지 못한 실정임
- 노후생활이 길어진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할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65~69세 31.5%, 60~64세 25.0%, 70세 이상 11.5%임

[그림 3]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국민의 희망 수명



주: 분석대상수는 990명임

□ 평균수명이 길어진 노년기 삶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 자원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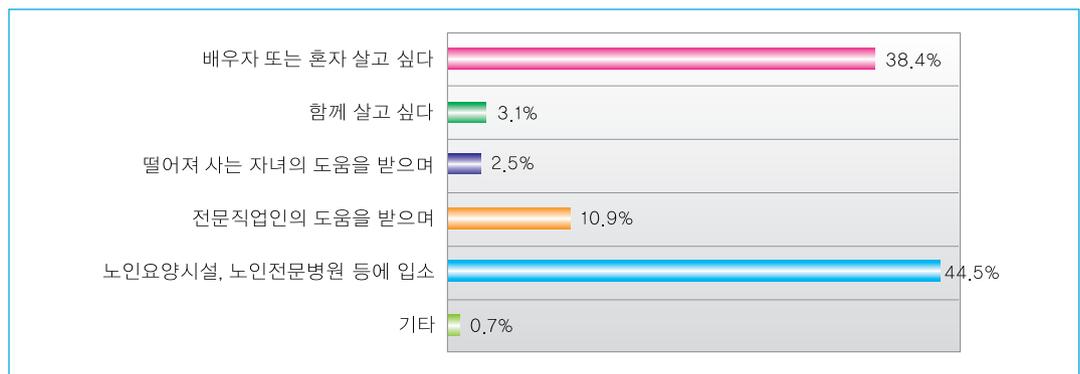
- 평균수명 연장시대의 노후에 중요한 가족 자원
 - 평균수명이 길어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가족 자원으로는 배우자가 84.3%, 자녀 12.6%, 형제자매 1.3% 등으로 배우자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평균수명 연장시대의 노후에 중요한 가족 이외의 자원
 - 평균수명이 길어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가족 이외의 자원으로는 친구가 68.4%, 지역 사회 주민이 22.6%, 직장동료 2.9%, 동호회 회원 2.4%, 기타 3.7% 등임
-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노년기 부부관계 변화 태도(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 평균수명이 길어진 노년기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3.5%, 보통이다 42.8%, 나빠질 것이다 3.8%로 긍정적인 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음

3.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희망하는 거주 형태 및 상속 유형

□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희망하는 거주유형은 무엇인가?

-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노후 수발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거주유형
 - 노후에 건강이 나빠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거주유형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입소하겠다는 비율이 44.5%, 배우자 또는 혼자 살기를 희망 38.4%, 전문직업인(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싶다 10.9% 등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기(5.6%) 보다는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희망함

[그림 4] 노후에 수발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거주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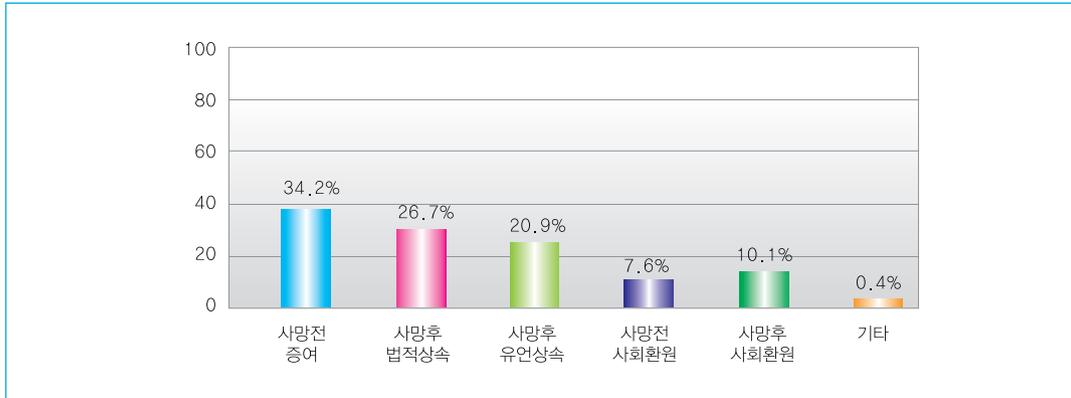


주: 분석대상수는 976명임

□ 평균수명이 길어질 경우 재산상속 문화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희망하는 상속 유형
 - 평균수명이 길어질 경우 희망하는 상속 유형은 사망 후에 하겠다는 비율이 47.6%, 사망전 증여가 34.2%, 사회 환원 17.7% 등으로 다양한 재산 상속문화가 형성될 전망

[그림 5]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희망하는 상속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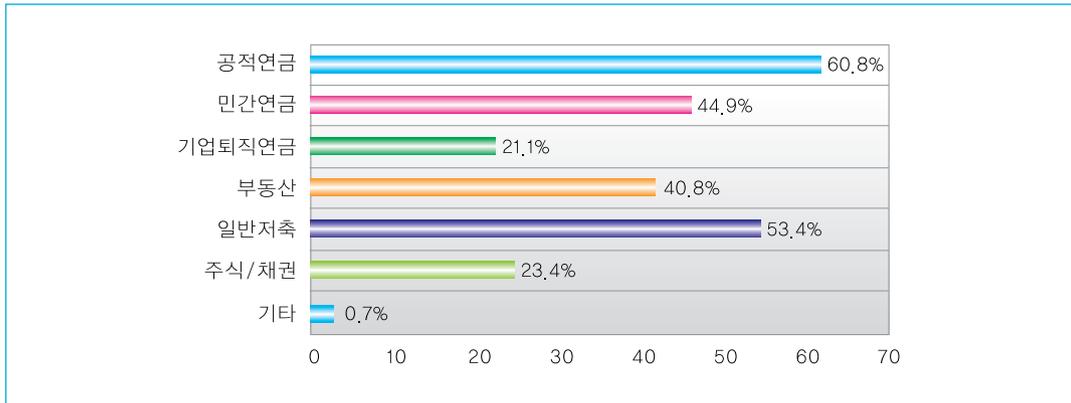
주: 분석대상수는 955명임

4. 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의 태도

현재 본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응답자의 69.6%는 본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준비를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 경제적 노후준비율은 40대가 7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50대 71.5%, 30대 68.9%, 60대 51.3% 등의 순임
- 현재 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제적 준비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공적연금이 가장 높아서 국민의 60.8%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일반저축 53.4%, 민간연금 44.9%, 부동산 40.8%, 주식 및 채권 23.4%, 기업퇴직연금 21.1% 등의 순임
-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노후준비 보다 현재의 지출이 더 급해서(86.2%)라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함

[그림 6]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별 현재 준비율(복수 응답)



주: 분석대상수는 1,000명임

□ 평균수명이 증가한다면 어떤 방법을 더 강화하여 경제적 노후를 준비 하겠는가?

- 평균수명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강화하고 싶은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일반저축이 가장 높아 23.8%이고, 그 다음은 공적연금 19.5%, 민간연금 19.0%, 부동산 18.2%, 기업퇴직연금 9.7%, 주식/채권 9.5% 등의 순임
- 결과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하여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공적연금이 8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일반저축(77.2%), 민간연금(63.9%), 부동산(59.0%), 주식/채권(32.9%), 기업퇴직연금(30.8%) 등의 순임

〈표 2〉 선호하는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선호하는 경제적 노후준비			없음	계 (명)
	현재 준비	신규 강화	소계		
공적연금	60.8	19.5	80.3	19.7	100.0 (1,000)
민간연금	44.9	19.0	63.9	36.1	100.0 (1,000)
기업퇴직연금	21.1	9.7	30.8	69.2	100.0 (1,000)
부동산	40.8	18.2	59.0	41.0	100.0 (1,000)
일반저축	53.4	23.8	77.2	22.8	100.0 (1,000)
주식/채권	23.4	9.5	32.9	67.1	100.0 (1,000)
기타	0.7	0.6	1.3	98.7	100.0 (1,000)

□ 60세 이후에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 전체응답자의 79.4%가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노후 근로욕구가 높음을 알수 있음
 - 남자는 85.4%, 여자는 73.4%로 남자가 60세 이후 근로를 더 희망함
- 60세 이후 희망하는 근로 유형
 - 희망하는 근로 유형은 ‘이전 하던 일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일’ 이 39.1%, ‘이전에 못해본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일’ 30.0%, ‘이전 일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일’ 28.3%로 노후에는 이전에 하던 익숙한 일을 더 선호함
 - 연령이 적을수록 ‘이전에 못해 본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일’ 에 대한 욕구가 높음

[그림 7] 연령별 60세 이후 희망하는 근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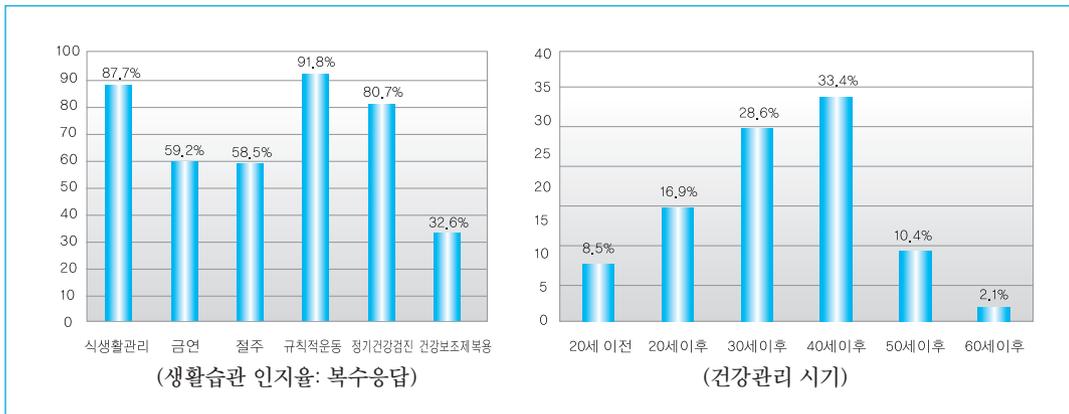
주: 60세 이후 근로를 희망하는 794명 대상으로 분석함

5. 건강생활습관 및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국민의 태도

□ 더욱 길어진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생활습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더욱 길어진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생활습관으로 규칙적 운동이 91.8%, 식생활 관리 87.7%, 정기적 건강검진 80.7%로 매우 높게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금연(59.2%)과 절주(58.5%)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음
-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 적절하게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대하여, 40세 이후부터라는 응답이 33.4%, 30세 이후부터 28.6%, 20세 이후부터 16.9% 등으로 대체로 30~40대부터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인식함

[그림 8]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생활습관 인지율 및 적절한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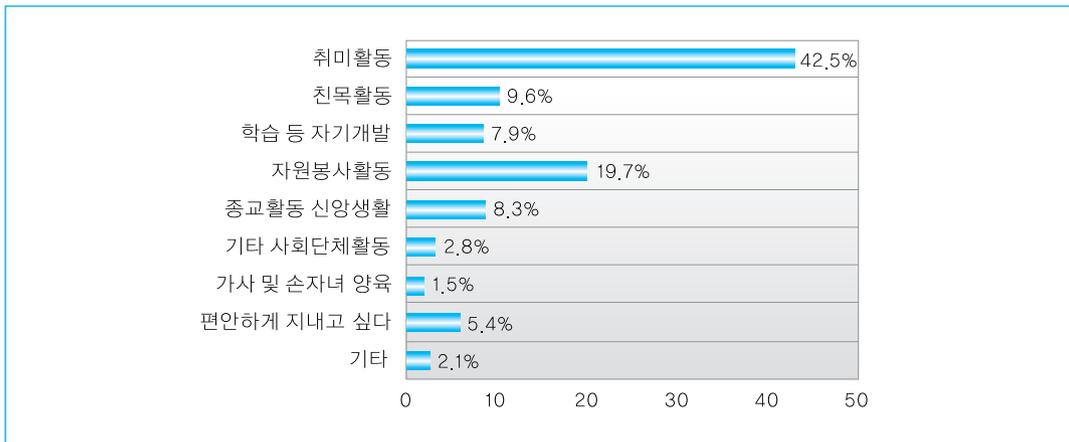
주: 분석대상수는 994명임

주: 분석대상수는 986명임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더욱 길어진다면 어떤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가?

- 노년기 여가활동으로는 '취미활동'이 4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19.7%, 친목활동 9.6%,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 8.3%, 학습 등 자기개발 활동 7.9% 등의 순임

[그림 9] 노년기 희망 여가활동



주: 분석대상수는 985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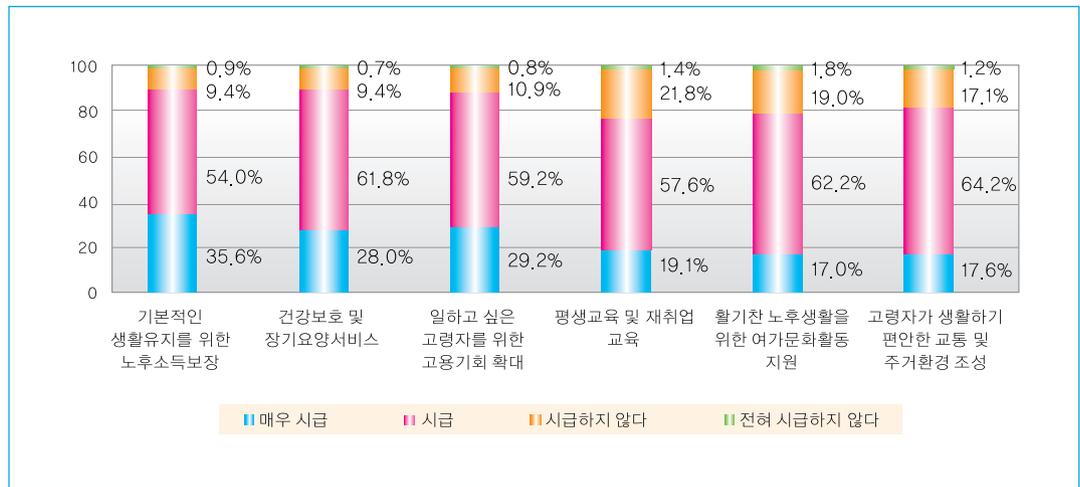
□ 노년기가 더욱 길어진다면 재무, 여가, 사회참여, 경력관리 등의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가?

○ 노후준비 상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 응답이 55.9%, 보통이다 22.9%, 부정적 응답이 21.2%로 노후준비 상담(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가?

○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의 시급성에 대하여 건강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89.8%,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89.6%, 일하고 싶은 고령자를 위한 고용기회 확대 88.4%, 고령자가 생활하기 편안한 교통 및 주거환경 조성 81.8%,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 79.2%, 평생 교육 및 재취업 교육 76.7% 순으로 높음

[그림 10]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별 시급성 정도에 대한 국민 의견



주: 분석대상수는 996명임

6.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전화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 평균수명 연장에 대한 국민의식 및 가치관의 정립

- 인생 100세 시대에 대응한 국민 인식의 변화 및 이해 증진
 - 인생 100세 시대에 대한 국민 의식을 고취하여 그 체감도를 증진하고 정책수용성 제고
 - 사회전반의 시스템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연구와 욕구발견에 근거한 정책모색
- 인생 100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근로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도출

□ 가족 및 사회 관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대응

- 안정화된 노후보호기반의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지층 형성과 함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돌봄망 구축
- 인생 100세 시대에 국민이 생각하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평균수명 연장시대에 노후 수발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거주형태가 노인중심으로 변화
 - 노인특성별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등 다양한 고령자 케어시스템 마련
- 재산상속 유형은 사망 전 상속보다 사망 후 상속방식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재산의 사회 환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차원에서 재산상속에 대한 바람직한 문화 및 가치관 형성

□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준비율은 약 70%로 대체로 노후준비에 공감
 - 더 길어진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노후설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교육
 - 계층별 차이를 고려한 다원화된 노후설계서비스 시스템 구축
- 60세 이후 일하기를 원하는 응답이 약 80%로 높음
 -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의 확립과 제도적 대응책 강구
- 건강생활실천 의식으로 규칙적 운동, 식생활관리, 정기적 건강검진 등에 대한 건강생활습관의 중요성은 높게 인지
 - 금연 및 절주 뿐 아니라 개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노년기 여가 활동에 대하여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 더욱 길어진 노년기에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따른 연령통합적 접근
 -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 취미생활을 개발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 여가를 통하여 휴식과 기분 전환 뿐 아니라 자기개발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오영희(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2-380-8242)
 김유경(복지서비스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2-380-823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